

12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2007

가정예배 룯기 · 사무엘상
빌레문서 · 히브리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2

2007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룻기 · 사무엘상

빌레몬서 · 히브리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되어 영적으로 부흥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믿음을 주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진함을 주소서.
- ③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 ④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교회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⑥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 ⑦ 모든 위원회에 속한 부서들과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공사중인 수양관, 본당 외벽석재 보수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때가 차매…”(갈 4:4)

영원한 어둠 그리고 형벌의 그림자뿐이었던
우리에게 은총의 때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창조주가 인간이 되신 놀라운 기적(눅 2:7~20)은
우리에게 은총의 기회를 주십니다.

말구유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빛은

술한 환난(마 2:1~19)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였으며

우리에게 은총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구유(눅 2:7)의 메시아,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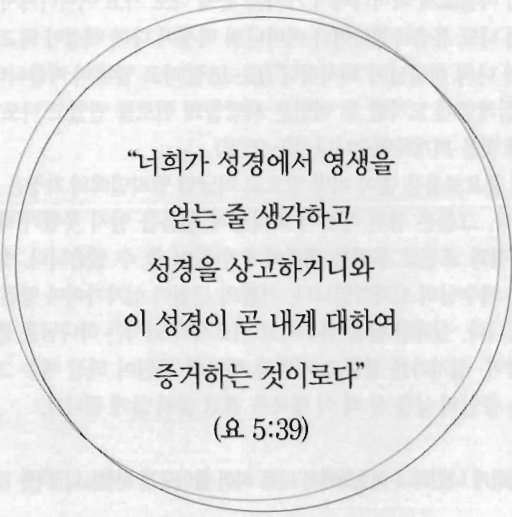
천국으로 열린 유일한 길 · 진리 · 생명(요 14:6)이신 예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만이 대답이십니다!

2007년 12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엘리멜렉 가정의 흥망성쇠를 통해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내려갔으나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1~5절) 고향에 양식이 풍성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권합니다. 큰 며느리는 모압 땅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6~14절)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 끝내 거절하고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15~18절)라고 말하며 따릅니다. 마침내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한 두 여인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고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간 것을 회개하였습니다.(19~22절)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좇아 이방 땅으로 떠났던 엘리멜렉의 가정은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참된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십자가이며 영원한 행복은 어린양입니다. 실패한 삶을 뒤우치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나오미와 같이, 십자가를 붙들고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이 행복을 결코 잃지 않게 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룻 1:21)

기도 제목 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주소서. ② 총현교회에 속한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가 복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나오미를 좇아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온 룻이 장차 메시아의 조상이 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생활의 궁핍이 닥쳐왔습니다. 룻은 이삭을 주워 연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착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발로 인도하셨습니다.(1~7절) 룻의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던 보아스는 특별히 룻을 환대하고 곡식 베는 자들에게 그녀를 위해 이삭을 많이 흘리게 하였습니다.(8~16절) 집으로 돌아온 룻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 무를 사자인 것을 알고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곳에서만 이삭을 줍도록 당부하였습니다.(17~23절)

룻은 지극한 효성으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룻은 자신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어찌하여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이같은 은혜를 베푸느냐고 물었습니다. 룻은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은혜 받지 못할 자였습니다. 이처럼 은혜 받지 못할 자로서 은혜를 입은 것은 룻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 받은 사실을 늘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룻 2:13)

기도 제목 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보혈의 은총과 성령으로 충만한 CMTC훈련이 되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룻과 보아스의 극적인 만남의 기록에 이어 시어머니 나오미에 의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보리를 타작하는 날 보아스에게 찾아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하도록 요청하라고 명하였습니다.(1~5절) 룻은 나오미의 명대로 옷을 단정히 하고 밤에 보아스의 밭치 이불을 덮고 곁에 누웠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보아스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룻을 가상히 여기고 자신보다 가까운 친족 중에 기업 무를 자가 없다면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6~13절) 룻에게서 모든 사실을 들은 나오미는 일이 성사될 때까지 사람들이 이 알지 못하게 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14~18절)

룻이 보아스를 만나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히 룻은 9절 말씀에서 자신을 보아스에게 맡기므로 새로운 생명, 곧 자녀를 얻어서 자신의 본 남편 가문의 대를 잇고 그 가문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기업 무를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안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끌지라도 또 모진 핍박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거하기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기업 무를 친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었던 나오미와 구원의 손길을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기다린 룻의 인내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룻 3:5)

기도 제목 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됩니다. 새벽에 룻을 돌려보낸 보아스는 아침에 성문에 나가 성읍 장로 십인을 청하고 나오미의 기업을 무를 친족에게 기업 무를 책임을 수행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일 그가 거부하면 자신이 기업을 무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1~6절) 이에 다른 친족이 그 책임을 포기하고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줌으로써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를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7~12절)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고 오벳을 낳았는데 그는 다윗의 조부가 되었습니다. 13~17절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낳은 자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계보로서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세밀한 것까지 주관하여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를 책임을 지닌 사람이 있었지만 그는 권리와 의무를 포기함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룻은 이방여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순종함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순종하는 룻을 통하여 인생의 전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을 깨닫게 합니다. 룻기의 끝맺음인 동시에 본서의 기록 목적을 함축하고 있는 18~22절은 무기력한 상태로 나아온 인간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며 은총입니다. 이 은혜의 비밀을 깨닫는 간증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룻 4:21~22)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당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며 장로님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 뒤를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맞이할 이스라엘을 위해 마지막 사사로서 준비된 사무엘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모친인 한나는 수태치 못하는 여인이었지만(1~8절),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의 기쁨을 맛봅니다. 한나의 기도는 믿음으로 드린 서원의 기도였고(9~11절) 하나님은 긍휼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12~20절) 한나의 서원과 기도는 단순히 아들 없는 설움에서 벗어나겠다는 육신적 소욕의 기도가 아니었으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신정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포가 사무엘의 출생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출생부터 하나님의 간섭을 받았고 일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21~28절)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시대가 죄악으로 인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터널 같을지라도 빛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메시아의 그림자(모형)로 살았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의 출생도 죄와 허물로 죽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긍휼과 구원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구원의 도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 시대의 거룩한 헌신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삼상 1:20)

기도 제목 ①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소서. ②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사무엘 하나님께 드린 한나의 감사 찬양(1~11절)과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죄, 엘리 가문의 심판 예언(12~3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으로 인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2절) 한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였습니다.(12절) 엘리 가문은 이 불량한 아들들로 인하여 엘리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무서운 심판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들이 불량한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와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17절)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는 여전히 불량자의 불경건함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삼상 2:2)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매주일 등록하는 새 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계시가 흔치 않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그 소전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 교만과 불순종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에(삿 17:6)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1~9절), 예언을 주시고(10~18절), 또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굳건히 세우시는(19~21절)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철저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분석하거나 무시하고 때로는 거부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더 앞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 충만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딤후 3:15)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부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하십시오.(엡 4:15)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삼상 3:10)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통하여, 범죄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여호와와 영광을 휘방한, 엘리제사장 가문의 몰락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거듭된 패배는 그들의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편에 서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성결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회개하지 않고 실패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3절) 그들은 더욱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수 7:6)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고 어리석게도 원망만 늘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비극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참담함을 겪어야 했습니다.(21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있기 전에는 어떤 형식적 종교의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정욕 때문에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면 애통하십시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삼상 4:11)

기도 제목 ① 죄를 마워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소서. ②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이제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오만과 우상숭배를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강력한 징계와 형벌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무력한 그들의 우상과 달리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도 있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블레셋의 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 거룩한 영광을 훼손하여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과 권위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예까지 회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첫 창조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새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삼상 5:11)

기도 제목 ①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 시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 왔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언약궤 때문에 곤경에 처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와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관습에 따라 여호와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명을 매어 본 적이 없는 암소가 자신의 송아지를 놓아두고 수레를 끌고 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와 법궤가 벤세메스로 곧장 향하자 그들은 과연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굴복하며 신앙고백과 삶이 일치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며,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벤세메스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19절) 법궤가 벤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그 곳 사람들이 여호와와 궤를 들여다봄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거룩하심이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한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벤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고 하고”(삼상 6:20)

기도 제목 ①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소서. ② 총현복지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 사랑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미스바대성회를 전후한 신앙개혁운동과 블레셋 전쟁에서의 승리, 회복된 이스라엘의 평화와 사무엘의 사역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2절) 이러한 사회적, 종교적 배경을 바탕으로 민족적인 회개와 영적갱신을 위한 미스바대성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열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5절) 우리도 모든 욕심과 죄악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 것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다스리심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마 6:33)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합당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위에 세워지자 이스라엘은 신앙의 부흥과 함께 영토가 확장되고 모든 면에서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13절)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 필요한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삼상 7:12)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주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미스바에서의 회개 이후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지도 하에 안정과 평화를 누렸지만 사무엘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이전의 부패한 모습이 다시 나타납니다. 사무엘을 대신하여 사사가 된 그의 아들들이 악행을 일삼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요구는 당연한 요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하는 불신앙에 바탕을 둔 악한 요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죄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직과 체제를 바꾸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철저한 회개와 자기부인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도적인 개선이나 체제의 변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주님의 백성이 시련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극복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시련의 때를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깨닫고 이기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겹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 받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그 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삼상 8:18)

기도 제목 ① 시련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교회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될 사울의 인물됨을 소개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끌어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선택된 것을 알려 주십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 나선 일과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 사무엘과 나눈 이야기 등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참으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시키시고 그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청되는 자질입니다. 성경은 사울을 가리켜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하더라”(1~2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21절)라고 합니다. 지도자에게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우리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삼상 9:17)

기도 제목 ①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먼저 기름부음 받은 사울과 세 가지 예언과 그 세 가지 예언의 성취를 통해 더욱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1~8절)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징조들이 다 응하게 하심으로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적합한 마음을 사울에게 주셔서 새 사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옛 성품과 자아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지도자는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17~18절) 지난 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 자기 지식과 경험, 물질과 사람, 조직과 제도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게는 여호와와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삼상 10:6)

기도 제목 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② 구역예배와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역사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온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암몬 자손의 침입으로 인한 야베스의 위기(1~4절),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사울(5~11절), 사울의 공식 즉위(12~15절)로 이어지는 과정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도자와 자기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의 역사를 보여줍니다.(6~7절) 암몬 자손의 갑작스러운 침략에 직면한 이스라엘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출 14:31)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회로 삼고 나아가 화목제를 통하여 믿음으로 승화시켜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12~15절) 처음 믿었던 그 때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위기의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삼상 11:13)

기도 제목 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② 남전도회 중심의 총력 교회 주변 전도에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교회 주변의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역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고통을 겪고 다시 하나님께 호소하며 돌아왔습니다. 그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번영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번 번영을 경험하면 다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와 같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압몬 사람 나하스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현실에 위험이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인간의 통치를 더 원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저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22절)라고 하며,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24절)고 권면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았으며, 그 결과는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도리어 인간의 권세를 크게 보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더욱 높이 평가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를 보혈로 씻기시고 구속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삼상 12:24)

기도 제목 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회학교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친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또 다시 미워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싸움을 걸어옵니다. 블레셋 군은 병기가 3만, 마병이 6천이었으며 그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5절)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거나 피난을 떠났으며 사울왕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떨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더디 오자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느낀 사울왕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는데, 그는 사울에게 책망하기를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은 변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흩어져 떠나고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이 므마스에 모였음을 보았기에 당장에 쳐들어 올 것만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부득이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노라고 애써 변명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신앙심이라는 합당해 보이는 핑계로 덮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형식적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도 대충 대충하는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교”(삼상 13:14)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함에 감사드리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②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블레셋 대군을 앞에 두고 있는 사울왕의 군대는 겨우 600명, 그것도 창과 검을 갖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창과 검을 가진 사람은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뿐이었는데, 그 까닭은 블레셋의 군대가 국내 각지에 주둔해 있으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장을 해제했고, 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모든 철공소를 폐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낮이나 호미 등의 수선이 필요할 때는 블레셋 사람에게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군대를 가지고 블레셋의 침략을 막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매우 용감하였으며 믿음이 있었기에 부하에게 블레셋 부대에 쳐들어가지고 제의를 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 하였느니라”(6절) 그러자 그 부하는 “당신의 마음에 있는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7절)하면서 순종하였습니다.

요나단의 눈은 저편에 있는 블레셋의 대군이 아니라, 이편에 있는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십자가입니다.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십자가의 은총을 느낄 수 있는 영원의 자녀들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간증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전쟁이 벤아웬을 지나니라”(삼상 14:23)

기도 제목 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② 모든 봉사자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서는 사무엘을 사울왕에게 보내어 아말렉을 치라고 명하시면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짐승 중에서 좋은 것들은 살려두라고 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십니까?”(19절)라며 책망합니다. 사울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21절)라고 변명합니다. 사무엘은 다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22절)라고 말하면서 사울왕의 생각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라는 사울왕의 핑계는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그러나 사울왕은 그런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더 큰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의 이런 잘못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억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유일하고 참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수요1·2부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사울왕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들을 남기는 악행을 행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사무엘의 책망에 사울왕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회개보다는 오히려 변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사울왕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이었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울왕을 버리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준엄한 심판입니까?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사울왕의 후계자를 선택하여 기름을 부게 되는데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7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인정받는 곳, 존경받는 곳에서 십자가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고통 중에도 묵묵히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가정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학교 선교사로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재능이나 소유가 아닙니다.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②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성탄 축하의 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은 키가 약 3미터나 되고 힘이 무척 센 데다가 칼과 창을 잘 쓰는 장사였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8~9절) 그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도망하였습니다.(11,24절) 이 때 이새의 막내아들인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곳까지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26절)라고 외칩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물매를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힘과, 쾌락과, 물질과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며 ‘십자가는 아닙니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큰 길을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와 타협하며 영적 전쟁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뒤에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 17:45)

기도 제목 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만을 찬양하는 성탄축하 기념음악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관심의 방향을 달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향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승리가 뒤따랐고 인심은 사울왕을 떠나 다윗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7절)라고 말하며 다윗을 한껏 칭찬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왕의 이런 행동은 다윗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29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29절)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이름은 심히 귀중히 되었습니다.(30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지키고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시 127:1)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존귀하게 된 것은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이름이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때문에 귀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죄인이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존귀케 하시며 십자가의 군사로 세우신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삼상 18:28)

기도 제목 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나를 낮추어 겸손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복음과 성령으로 무장되는 CMTC직무훈련이 되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빌레몬서는 골로새에서 도주한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에는 비록 노예 신분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진리가 감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납과 사랑은 윤리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드려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신 그리스도의 참된 용서와 신적 사랑에 기인합니다.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누구든지 계급이나, 지위나, 성별이나 인종을 따지지 않고 서로 잘못을 용서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망간 중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충고하는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써 빌레몬에게 강력하게 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존하여 빌레몬에게 겸손히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바울의 이런 심정과 태도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심정과 태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를 한답시고 자신의 권위를 엄격하게 내세우기가 쉬우며 그들을 무시하는 입장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치 사랑하는 아들을 권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네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문 1:7)

기도 제목 ①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로 다가오신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② 학습·세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학습 및 세례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사 말씀을 선포케 하셨으나 종 말에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아들을 보내사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다고 말합니다.(1~3절) 그 다음으로는 구약 성경의 일곱 부분을 인용하여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임을 역설합니다.(4~14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다스리시는 창조주이며 섭리주이십니다.(롬 11:36)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확실성을 한층 더 강력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 사역과 구속 계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신 그리스도를 이 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아들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은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②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현재로는 천사보다 못한 형편에 있지만 그것은 잠깐 동안의 일일 뿐이고 나중에는 천사보다 귀한 존재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하고 참된 속죄를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속죄는 죄 없는 누군가가 죄악된 나를 대신하여 죽어줌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가 당해야 할 죄악의 형벌을 홀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악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두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또 다른 목적은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중보자는 양편 가운데 서서 일을 주선했습니다. 양편 중 어느 한편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는 사람은 좋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신 까닭도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연약한 성정을 지닌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을 정확히 이해하셨으며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체휼할 수 있는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속성과 한계를 통찰하시며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누구든지 친히 인간이 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끄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히 7:25)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히 2:18)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하는 성탄절 감사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처음 구절은 짧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1절) 복음적인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심과 기록된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이런 권고를 얼마나 성실하게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공부 모임에 많이 참석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자랑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니까?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늘 깊이 생각하며 사십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순종치 않는 죄에 대한 준엄한 경고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열조들의 불신앙을 일컬어 ‘마음을 강박케 하다’(8,15절), ‘마음이 미혹되다’(10절)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마음의 굳어짐에서 출발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음이 강박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고 강박한 마음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애통하며 기도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됩니다.(14절) 주님 앞에 항복하는 길만이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 3:1)

기도 제목 ① 어떤 환경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모든 봉사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안식에 대한 설명입니다.(1~13절) ‘안식’이란 단어는 창세기 2장 2절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그 후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의 규례가 제정되었습니다.(출 20:8) 출애굽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으로 이해되었습니다.(신 12:9)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약속된 안식을 누렸던 것은 앞으로 올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8~9절) 이 영원한 안식은 영적인 안식과도 통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성취되었으며 장차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계 14:13) 둘째 부분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입니다.(14~16절)

이처럼 양분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후 문맥을 유의하여 보면 두 개의 단락이 긴밀한 연관 속에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진술하고 있는 후반부는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라고 권고하는 전반부의 근거와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보증과 통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전부가 되시며 유일한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의 모든 토대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찌어다”(히 4:14)

기도 제목 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대제사장의 자격은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하고(5~6절),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음을 밝힙니다.(7절)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에 부르심을 받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론의 계열보다 더 높은 계열의 제사장직에 임명하신 것입니다.(6절) 아론의 제사장직은 일시적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속적인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조상들로부터 후손들에게 계승되는 것이었으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그에게서 완성된 것입니다.

7절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계실 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속죄일에 되풀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물은 수염소나 수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흠 없고 거룩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히 4:16)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시요 중보자이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 5:8~9)

기도 제목 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천하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진보를 분명하게 이루라고 촉구합니다. 촉구의 이유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배교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배교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합니다.(1~8절) 그들의 구원이 멀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소망 중에 인내할 것을 당부합니다. 영적 성장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시험이 인내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는 극심한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 영적 성숙은 커녕 오히려 배교의 위험에 처한 자들이 있었는데, 저자는 그들에게 낙심치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13~18절), 그리스도께서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저 천국의 안식(19~20절)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만을 깨닫고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한 줄 착각하고 교만과 안일에 빠져 지속적인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고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11절)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성취와 축복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 날이 되기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영원을 앞에 놓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앞에 놓고 놀라운 창조주의 비밀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갈보리로 가신 그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헌신이 있기 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히 6:12)

기도 제목 ① 신앙의 초보를 기초로 하여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전도위원회에 세우신 일꾼들이 오직 은혜로 쓰임받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심으로 맡은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본래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았고 아버지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자입니다.(1~3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자기 형제들에게서 십일조를 취하지만, 멜기세덱은 레위 계통이 아닌데도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을 인하여 자기들의 십일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4~10절) 이처럼 아론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직이 온전치 못하였으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2절)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많은 언약이 맺어졌는데,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제의와 인간이 그 조건을 수락함으로써 성립되었습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제물들이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언약을 어길 때마다 제사장은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으로 구약의 언약보다 더 확실하고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양쪽 모두에게 유효한 보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요일 4:15)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중보자로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히 7:21)

기도 제목 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어떠한 삶의 어려움도 인내하는 신앙생활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 시작 15분 전에 침석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되 항상 제사를 드렸고 지성소에서는 일년에 한번 속죄일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옛 언약에 기초하여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새 언약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영원한 하늘 제사의 그림자이며 모형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실제이며 구원의 진정한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며 구원하는 참 능력입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땅이나 자손들, 물질적 풍요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축복에 대한 약속과 비교해 볼 때 더 좋은 약속입니다. 이 장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더 좋은 새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렘 30:31~3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주셨으며 성령을 보내시어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주셨습니다.(롬 8:2) 짐승이 제물로 드려지던 제사와는 달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더 좋은 언약은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복음에 붙잡힌 우리의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 8:12)

기도 제목 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2007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더욱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교재

12월 구역교재 초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베들레헴 말구유에 한 아기가 누워있습니다. 이 아기는 온 세상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종교지도자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변민하고 소동하였습니다. 진정 아기 예수님을 찾아 온 사람들은 철저히 소외받던 목자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 온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정작 있어야 할 사람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곁에 있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공술, 처세술로 변질된 적그리스도 곁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말구유를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비록 누추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곳에 참 길, 참 진리, 참 생명이 있습니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1130	갈 4:4~7	그의 아들의 나심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탄생을 보라
1207	눅 2:7~20	놀라운 기적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라
1214	마 2:1~19	헤롯왕	참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께 경배하라
1221	눅 2:7	구유 안에 누인 아기	구유 안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찾으라
1228	요 14:6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1. 구역 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 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그의 아들의 나심

| 초 점 |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탄생을 보라

| 찬 송 |

찬송가 110장 공중에는 노래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 본 문 | 갈라디아서 4:4~7

⁽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⁵⁾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⁶⁾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⁷⁾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대림절이 이번 주일(12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의 나심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성취의 실체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 그동안 금요찬양집회를 통하여 은혜 받았던 크리스마스 메시지와 찬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2000년 전, 베들레헴은 구주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결국 온 인류의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눅 2:7

※ 그리스도의 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구주의 탄생이 나에게 주는 의미 _____

의미 나누기 _____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은 사라지고 오직 은총으로 가득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총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찬양하라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에 진정으로 환호하십시오. 예수님은 저주 아래 놓인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마 2:9~11

갈 4:7 /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이 아니요 ☐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을 이을 자니라

때가 차매, 하나님의 아들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선물은 이 땅에 천국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 에베소서 2:14~16 말씀이 주는 의미를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가능해졌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엡 2:19 /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도 아니요 ☐도 아니요 오직 ☐들과 동일한 ☐이요. 하나님의 ☐이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 2:7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야말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입니다.

※ 동정녀 마리아(눅 1:30~33, 38)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대한 그녀의 반응과 나의 반응을 비교한 뒤 나누어 보십시오.

믿으라

때가 찬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갈 4:4

요 1:1~4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되게 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 1:14 / 말씀이 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와 가 충만하더라

딤후 2:5

고전 1:24

부인하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마음을 여시고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에 참여하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십시오. 놀라우신 은총을 찬양하십시오.

엡 2:4~6

벧후 1:3~4

※ 현재 내가 부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탄생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특히 성육신의 기적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 1:12

※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한 나의 신앙을 써 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한다면 우리는 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나심' 속에 담겨 있는 은총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하나님의 성육신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신자가 되게 하소서.
2.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구주의 나심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2과 놀라운 기적

| 초 점 |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라

| 찬 송 |

찬송가 118장 영광 나라 천사들아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 본 문 | 누가복음 2:7~20

㉗ 만이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㉘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밤에서 밤에 자
기 양떼를 지키더니 ... ㉙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
키어 생각하니라 ㉚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
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
며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치명적인 죄를 범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기에 크리스마스는 기적의 날입니다.

※ 크리스마스가 왜 기적의 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을 나누어 보십시오(눅 2 장)

놀라운 기적의 밤은 이미 오랫동안 천국의 달력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이 약속의 순간이 도래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역시 그것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미 5:2

크리스마스는 참으로 경이로운 기적의 날입니다. 구주 예수가 나신 그 날, 크리스마스가 왜 기적의 날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창조주가 인간이 되신 놀라운 기적

크리스마스에 창조주가 인간이 되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겠습니까?

눅 2:7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 1:10

사 40:26 /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것을 하였나 보라 께서는 수효대로 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이 없느니라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에 대해서 써 보십시오.(설교문 참조)

천군 천사들이 전한 놀라운 기적

크리스마스의 소식은 천사들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와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와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렸습니다. 한 천사는 베들레헴 지경, 유대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눅 2:10~11

※ 천사가 전한 기적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또한 나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도 나누어 보십시오.

기적의 장소였던 베들레헴은 매우 특별한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설교문 참조)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밤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밤은 기적의 밤이요, 영원토록 기억될 밤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에 동참하십시오.

눅 2:14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로마제국의 황제에서부터 마리아의 마음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눅 2:1 / 이 때에 가이사 가 을 내려 천하로 다 하라 하였으니

눅 2:3~5 / 모든 사람이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되었더라

마 2:2 /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에서 그의 □□을 보고 그에게 하니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곧바로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 말구유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들은 천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먼 길을 여행하는 동안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전하는 모습이 있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눅 2:18~20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창조주가 인간이 되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에 의해 생생히 증거된 기적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 1:21

마 2:10

눅 2:11

크리스마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기적의 대열에 동참하십시오. 크리스마스를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소서.
2.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소서.

3과 헤롯왕

| 초 점 |

참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께 경배하라

| 찬 송 |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가 213장 먹보다도 더 검은

| 본 문 | 마태복음 2:1~19

^㉑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헬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㉒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 ^㉓ 라미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관심했습니다. 큰 별을 따라 먼 길을 여행하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동방박사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에서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헤롯왕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 2:1 /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헬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박사들을 만난 뒤 헤롯왕은 메시아에게 관심을 갖기 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고 실행했습니다.

※ 마태복음 2:1~18 말씀을 요약한 뒤 나누어 보십시오.

※ 헤롯왕과 동방박사들의 신앙을 비교해 보십시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속이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은 자신이었지만, 그리스도 주위에 있는 가축들이 자신보다 더 고귀해보였고, 베들레헬의 보잘것없는 마구간이 자신의 왕궁보다 더 높아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이었던 헤롯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헤롯의 번민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이 온 목적을 말했을 때 헤롯은 번민했습니다.

마 2:3

※ 헤롯이 번민한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은 이 세상에 나신 왕을 찾기 위해 헤롯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동원해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찾게 한 다음 동방박사들에게 그를 찾거든 돌아와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마 2:8

※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자신에게로 돌아와 달라고 말한 의도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때 헤롯은 근심했습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지만 헤롯은 번민했습니다. 박사들이 찬양하는 그 순간 헤롯은 계락을 짖습니다.

※ 나의 모습은 헤롯과 동방박사들 중 누구와 가까운지 나누어 보십시오.

온 예루살렘의 소동

헤롯의 번민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헤롯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한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습니다.

마 2:3 /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한지라

우리의 근심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때 불순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 로마서 14:7 말씀을 읽은 뒤,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헤롯의 번민은 온 예루살렘을 발각 뒤집어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헤롯은 매우 끔찍한 일을 명령했습니다.

마 2:16 /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_____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_____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학살했고,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졌던 그곳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애곡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베들레헴은 헤롯으로 인해 슬픔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 2:18

죄로 인한 영원한 번민

죄로 가득한 헤롯의 번민은 영원할 것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물론 이거니와 죽음 후에도 이 번민은 계속될 것입니다.

마 2:19 / ☐☐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은 자신의 죄, 질투와 분노 가운데서 죽었으며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헤롯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 중의 왕이 되는 게 그의 욕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헤롯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로 갔습니다. 그의 영혼은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살후 1:9

벧후 2:9

헤롯은 하나님의 은총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는 목된 소식을 처음으로 접했던 예루살렘에 있었고 따라서 구세주를 첫 번째로 영접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기를 원했지만 헤롯은 번민 가운데 죽었습니다.

약 1:14~15

※ 현재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번민과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십자가로 路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번민하던 헤롯입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입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모든 번민은 사라지고 참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계 1:5 / 또 충성된 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로 말미암아 은혜와 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하시고

골 3:15

헤롯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번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번민 가운데서 죽었고 지금도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헤롯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참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2. 번민을 멈추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4과 구유 안에 누인 아기

| 초 점 |

구유 안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찾으라

| 찬 송 |

찬송가 113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 본 문 | 누가복음 2:7

말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마음으로 路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구유는 동물의 먹이를 담은 그릇입니다. 아마도 구유는 지독한 냄새로 진동했을 것입니다. 왜, 왕 중의 왕인 메시아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실로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구유가 아닌 화려한 왕궁에 계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 1:3

빌 2:6~7

메시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구유 안의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 현재 내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구유입니까? 왕궁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시선은 화려한 왕궁이 아닌 말구유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구유 안에 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아기가 되어 강보로 싸여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하고 더러운 곳, 쓰레기통보다 더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쓰레기만도 못한 죄인들을 구하려고 오셨습니다.

시 113:5~7

욥 2:8

요셉과 마리아는 오랜 여행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를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 되어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겨우 쉴 곳을 찾았지만 그 곳은 냄새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눅 2:4

크리스마스의 밤, 요셉과 마리아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출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 이번 크리스마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리라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설만한 장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친구가 아닌 세상의 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요 1:10~11 /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
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지 아니
하였으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은 가장 귀한 모퉁이 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은이나 금에 눈이 멀어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
셨을 때 그분을 외면하며 푸대접하였습니다.

사 7:13~14

벧전 2:7

참 그리스도인은 구유 안에 누인 귀한 모퉁이 돌을 발견합니다. 참
메시아는 마구간의 진흙투성이 속에서, 그리고 투박한 나무 십자가에
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메시아 예수님을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나의 모습을 비교한 뒤 나누
어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계신 말구유를 발견한 사람들은 천대받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하는 목자들은 항상 깨어있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천사의 음성을 듣고 메시아를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 5:2 / 내가 잘찌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_____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야 문 열어 다고 _____
하는구나

예수님을 찾으려면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만날 수 있습니다.

시 121:4

눅 2:10

목자들이 들에서 일했던 반면 해롯과 대제사장들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목자들만이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 크리스마스를 앞 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路

구유에 누우신 메시아, 예수님은 냄새나는 말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었던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눅 2:12

요 1:14

예수님께 참 평화가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 누추한 말구유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아올 때 하늘에서 내려온 참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메시아는 화려한 왕궁이 아닌 구유에 계십니다. 구유 안에 누우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 간절한 기도 |

1. 구유 안에 누우신 메시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믿음을 주소서
2. 화려한 크리스마스가 아닌 구주 탄생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말구유의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5과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 초 점 |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 찬 송 |

찬송가 222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송가 224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 본 문 | 요한복음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007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사역을 정리해야 할 때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16장에서 제자들에게 유언같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니다.

※ 요한복음 13~17장의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의 시간적 배경은 유월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13:14

요 14:1~2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요 14:5)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님은 길이시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그 길이라고 가리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4:6 / 예수께서 가라사대 _____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악한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길로 가도록 미혹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고후 11:14~15)

※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을 향해 열린 유일한 길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 성구와 말씀을 올바르게 연결한 뒤 암송해 보십시오.

- | | | |
|------------|---|---|
| 요한복음 3:16 | · |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
| 사도행전 16:31 | ·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 에베소서 2:8 | · |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
| 로마서 5:1 | · |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천국을 가고 싶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요 14:6 /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_____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서의 행복과 성공에 초점을 둔 많은 종교인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진리는 예수님 말고도 많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일 2:22

요이 1:7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살후 2:13 /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를 으로 을 얻게 하심이니

요 14:3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길이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요 14:6 /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_____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 / 그 안에 _____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천국에 가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과 연합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요 6:35

요 11:25

가장 가치있고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살과 낙태, 안락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귀중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유일한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기쁨을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십자가로 路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입니다.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시기 바랍니다.

※ 요한복음 14:6 말씀을 암송한 뒤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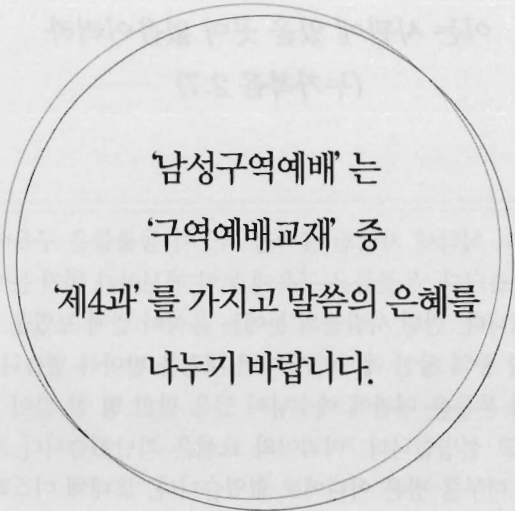
요 8:12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갈 예수님의 일꾼(로마 15:16)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심에 반드시 계셔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무가치합니다.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2008년을 향한 힘찬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소서.
2. 오직 믿음으로 2007년을 결산하고 2008년을 준비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이 사라지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구유 안에 누인 아기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복음 2:7)

사람들이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먹듯이 동물들은 구유에 담긴 음식을 먹습니다. 동물들은 구유에 누인 메시아가 먼저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반면 사람들의 눈에는 음식이 먼저 보였을 것입니다. 왜, 왕 중의 왕인 메시아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했습니까? 오늘의 성경 본문은 여관에 예수님이 있을 만한 방 한 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머무를 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그들은 메시아를 위해 특별한 장소를 준비해두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의 진리를 진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진주, 다이아몬드, 금, 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보

물은 세상의 왕궁이나 은행 금고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보배로운 보물인 예수님은 가장 열악한 장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낮은 곳이 아닌 높은 곳만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3은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처럼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탄생을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 이웃 사람이 대통령이나 유명 인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면 모두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는 비교 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가장 비천하고 더러운 곳, 쓰레기통보다 더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쓰레기만도 못한 죄인들을 구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비천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시편 113:5~7은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동방의 부자였던 욥이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욥 2:8) 예수님은 욥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도 구원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한 자들이 머무를 만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에 실 곳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혼자서 먼 길을 왔습니다. “요셉

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눅 2:4) 그 특별한 밤에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서로를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외로이 메시아를 출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친구가 아니라 세상의 친구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0~11은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실로 그 누구도 가장 귀한 모퉁이 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7:13~14은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찌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땅에서 메시아에게 허락된 유일한 장소가 말구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은이나 금에 눈이 멀어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푸대접하고 말았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구유 안에 누인 귀한 모퉁이 돌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으시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의에 주리고 겸손한 심령입니다. 참 메시아는 마구간의 진흙투성이 속에서, 그리고 투박한 나무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신자들은 좋은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 자신들의 명성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겸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진흙탕이나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낮은 자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천한 신분으로 밤에 일을 했던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딸କୁ 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빈둥거리며 게으름을 피울 틈이 없었습니다. 늑대들이 양들을 해치거나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면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아가서 5:2은 말합니다. “내가 잘찌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편 121:4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일했던 반면 헤롯과 대제사장들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목자들만이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눅 2:10) 물론 그들은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가서 예수님을 찾으라고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눅 2:12) 천사는 목자들이 그 증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에는 오직 전쟁만 있을 뿐 진정한 평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화친을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동안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14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구유 안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궁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3:15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찌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사울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스테반을 죽이는데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찾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는 구유 안에 누워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 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7년 12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